

2009학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제 1 교시

언어추론

계열 공통

성명 :

수험번호 :

홀수형

1

- 
- 검사가 시작되기 전에 문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항을 미리 볼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수험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은 홀수형 문제지로, 짝수인 수험생은 짝수형 문제지로 응시해야 합니다. 문제지가 자신에게 맞는 문형인지 확인하십시오.
  - 이 문제지는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와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지 우측에 있는 '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시험 시간은 09:00~10:30 (90분) 입니다.
  - 이 문제지는 검사 종료 후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다음은 질병·치료 관련어들의 묶음이다. <보기>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때, 의미상 이질적인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보 기>  
'고치다, 교정하다, 다스리다, 뜨다'는 [질병·치료] 관련어 중에 [치료 행위]의 의미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동질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끼다 ㉞	걸리다 ㉞	따끔따끔 ㉞	가라앉다 ㉞	병간호 ㉞
따다 ㉞	쭈시다 ㉞	새큰새큰 ㉞	내리다 ㉞	병구완 ㉞
트다 ㉞	아리다 ㉞	옥신옥신 ㉞	술다 ㉞	병구원 ㉞
헐다 ㉞	자리다 ㉞	저릿저릿 ㉞	아물다 ㉞	병시중 ㉞

2. ㉠~㉤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 버 지 : 엄마 어디 가셨니?  
 아 들 : 할아버지께서 허리가 ㉠ 아프셔서 모시고 병원에 가셨어요.  
 아 버 지 : 젊으셨을 때 전쟁에서 다치셨단다. 그 후로 지금까지 고생이지구나.  
 아 들 : 좀 전에 어머니께 전화가 왔는데요. 집으로 오는 버스를 ㉡ 타고 있는데, 금방 도착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참, 심하지는 않으시다는 말씀도 ㉢ 계셨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할아버지와 어머니 등장)  
 아 들 : 할아버지, 조금 전에 아버지 ㉣ 퇴근했어요.  
 아 버 지 : (안방에서 나오며) 좀 어떠세요?  
 할아버지 : 괜찮으니, ㉤ 너무들 걱정 마라.

- ① ㉠의 '아프다'의 주어가 '할아버지께서'가 아니라 '허리가'이므로 '아프셔서'를 '아파서'로 고쳐야 한다.
- ② ㉡의 '타고 있다'는 동작의 진행이라는 의미 또는 완료된 상태의 지속이라는 의미의 두 가지로 해석된다.
- ③ ㉢과 관련하여, '어른의 말씀이 있다.'에서 '있다'의 높임 표현은 '계시다'가 아니라 '있으시다'를 사용해야 한다.
- ④ ㉣에서 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인 '퇴근하셨어요'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청자인 '할아버지'를 고려한 것이다.
- ⑤ ㉤에서 '들'은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들'을 '걱정' 뒤에 붙여도 문장의 의미 차이가 거의 없다.

3. <보기> 안의 '예'로 추가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손, 발, 귀, 코, 눈, 입, 어깨' 등의 신체어는 다른 말과 어울려 관용어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각기 다른 신체어를 포함한 관용어가 유사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예) 그 사람하고는 발이 맞아 무슨 일이든 척척 진행된다.  
 (← 손이 맞아)  
 항상 돈을 홍청망청 쓰는 저 집은 돈이 손에 걸리나 보다.  
 (← 발에 채나)

- ① 사건이 탄로 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입을 맞춰야 해.(← 코를 맞대야)
- ② 그는 아랫사람에게도 어깨를 낮출 줄 아는 인격자다.(← 귀를 줄)
- ③ 너는 그 일에서 손을 떼고 다른 일을 해 보아라.(← 눈을 돌리고)
- ④ 그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코가 빠져서 돌아왔다.(← 어깨가 처져서)
- ⑤ 설마 그가 입을 씻고 모른 체하지는 않겠지.(← 귀를 씻고)

4. 어법상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소화관 내벽의 점막은 소화된 음식물의 흡수와 내벽 안쪽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② 구강 검사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흔하게 갖고 있는 질환이 바로 충치와 풍치이다.
- ③ 운동은 병균을 막는 면역 기능을 강화하여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 주며 적혈구를 생산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 ④ 순환기계의 기능은 세포에 필요한 산소, 영양분 등을 세포로 운반하고 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을 배설 기관으로 운반한다.
- ⑤ 원시인들은 통증을 줄이기 위해 해당 부위를 찬물에 담그거나 열기에 노출시켰으며 해당 부위를 누르는 압박법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퀴비에, 조프루아, 라마르크는 19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생물학자들이다. 이들의 이론이 가진 공통점은 '조직화(organization)'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조직화는 당시 생물 이론에서 주목하던 구조, 기능, 환경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이들은 생물의 조직화 과정에서 구조와 기능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달리 평가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이 주장한 생물 이론도 달라졌다.

퀴비에의 생물의 조직화 과정에서 구조보다 기능을 중시했다.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창조되었으며, 각 기관의 기능은 창조 당시에 부여되었다고 믿었다. 그 기능에 따라 각 기관의 구조가 결정되고 기관들은 기능적으로 상호 긴밀하게 연관된다. 퀴비에의 이를 '부분들의 상호 연관성'이라고 불렀다. 그는 생물체가 독립된 부분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전체이며, 부분은 전체의 흔적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통합성으로 인해 생물체의 어느 한 부분에라도 변화가 발생하면 몸 전체가 치명적 손상을 입으며,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이전의 생물학자들은 어떤 생물이라도 부분들의 무작위적 집합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퀴비에의 통합적 전체로서의 생물이 환경이 요구하는 생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동물의 경우 그 기능을 중심으로 네 가지 제한된 유형만이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네 가지 유형은 척추, 연체, 절절, 방사형 동물 문으로, 퀴비에의 이들을 바탕으로 불연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기본 체계를 세우고 분류의 기초로 삼았다.

반면, 조프루아는 생물의 조직화 과정에서 기능보다는 구조를 중시했다. 그는 생물이 가장 하등한 것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단일 선상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존재의 연쇄'를 믿었으며, 이를 '단일 도안(plan)' 개념과 연결시켰다. 그에 따르면, 생물의 구조는 단일 도안에 기초하여 통일성을 갖지만 생물이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 존재의 연쇄 위에서 조금씩 다르게 연속적으로 배열되고, 이러한 생물의 구조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에 따라 환경이 변하면 기능과 외관이 변화함으로써 생물은 달라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조프루아는 골격 구조는 같으나 기능과 외관이 다른 기관을 '상동기관'으로 불렀으며, ㉠의 형성을 자신의 체계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퀴비에의 불연속적 분류 체계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라마르크는 생물의 조직화 과정에서 구조를 중시했으며, 이 면에서 조프루아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직화가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 짓는 광범위한 원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동일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라마르크는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 생명을 설명하고자 했던 당시의 생각과는 달리, 자신의 체계에 물리적 법칙을 따르는 조직화 개념을 도입하였다. 예를 들어 동물은 세포 등의 '내부조직', 혈액 등의 '내부유체', 전기·자기 등의 '자유유체'로 구성되어 있다. 생물은 무기물로부터 점진적인 조직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조직과 유체들은 상호 작용하여 기관을 형성한다. 그에게는 일정한 방향으로 사물의 질서를 통제해 생물을 형성하는 조직화가 생물을 무생물과 구분하는 핵심 개념이 되었다. 이러한 생물관에 기초하여 라마르크는 동물, 식물, 광물의 삼분법을 동식물을 합한 생물계와 무기계의 이분법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생물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다.

5. 위 글을 바탕으로 가상의 대화를 꾸몄을 때,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퀴비에 : 조직화는 생물체의 각 부분들이 무작위적 집합을 통해 몸을 구성하는, 생물의 고유한 원리야.  
조프루아 : 아니야. 조직화는 무생물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원리야.

- ② 퀴비에 : 동물의 각 기관은 기능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 기관의 구조는 기능에 따라 형성되었어.  
라마르크 : 아니야. 기능보다는 구조가 더 본질적이야.
- ③ 조프루아 : 생물의 연속성을 생각해 볼 때 퀴비에 당신의 분류 체계는 자의적이야.  
퀴비에 : 아니야. 나의 분류는 환경이 요구하는 생존 조건을 바탕으로 체계화한 거야.
- ④ 조프루아 : 환경이 변하면 생물 종도 변해.  
퀴비에 : 아니야. 환경이 변하면 생물 종은 멸종할 수는 있어도 변화하지는 않아.
- ⑤ 라마르크 : 탐사 팀이 지난번 발견한 공통 다리뼈 몇 개로 전체 골격을 재구성할 수 있을까?  
퀴비에 : 부분은 전체에 통합되고 전체는 부분에 흔적을 남겨. 그래서 이 흔적만으로도 충분히 재구성할 수 있어.

6. ㉠의 설명에 필요한 조프루아의 논거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구조는 환경에 맞게 변한다.
  - ㉡. 기능은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 ㉢. 환경이 변하면 기능과 외관이 변한다.
  - ㉣. 단일 도안에 기초한 구조적 유사성은 항상 유지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7. 위 글에 나타난 세 사람의 이론을 현대적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능을 중심으로 기관들을 비교하고 이에 기초해 생물 종을 분류한 퀴비에의 방식은 조상 종과의 진화적 계통을 분류의 기준으로 삼는 현대 생물학의 분류 체계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 ② 생물체와 무기체가 동일한 물질로 구성되었다는 라마르크의 견해는 생물과 무생물이 동일한 물리·화학의 법칙을 공유한다는 현대 생물학의 개념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 ③ 연속성과 단일 도안 개념에 근거한 조프루아의 생물 체계는 모든 생물 종이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유래했다는 현대 진화론의 공통 조상설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 ④ 조직화 개념에 기초한 라마르크의 생명관은 무생명에서 생명이 출현한 것을 자연적인 과정으로 설명하는 현대 생명 기원설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 ⑤ 조프루아의 구조적 통일성 개념은 모든 생명체가 이중 나선 구조의 DNA를 공유하고 있다는 현대 생물학의 발견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64년 워홀(A. Warhol)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브릴로 비누의 종이 포장 상자와 외관상 흡사하게 만든 나무 상자들을 작품으로 전시한다. 이 전시에 대해 찬사와 비난이 엇갈렸지만, 단토(A. Danto)에게는 이것이 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슈퍼마켓 진열대의 브릴로 상자들과 워홀의 <브릴로 상자>는 시각적으로는 구별되지 않는데, 왜 후자만 예술 작품이 되는가? 이러한 의문이 단토 예술 비평의 출발점이 된다.



워홀, <브릴로 상자>

단토에 의하면 예술 작품과 물리적 대상을 구별해 주는 것은 지각적 식별에 의해 파악되지 않는 그 무엇이다. 그에 따르면 이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리적 대상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해석이다. 예술 작품이 예술 작품일 수 있는 조건은 예술가의 특수한 심적 상태에 그 기원을 둔다. 그렇다고 어떤 예술가가 특정 물리적 대상을 예술 작품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예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관람자가 그것을 감상하고 해석할 수 있는 특수한 대상, 즉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여야 예술가가 그 대상에 어떤 내용과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술가는 자신이 속한 예술계에서 취할 수 있는 예술 이론과 규약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관람자는 예술가가 제시한 의미를 작품을 통해 읽어 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작품의 제목이다. 제목은 그 작품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거나 암시하기 때문이다.

예술 작품이 예술가에 의해 어떤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은 그 대상이 해석을 통해 비로소 예술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석이 달라지면 예술 작품도 달라진다. 새로운 해석은 예술가가 만들어 놓은 물리적 실체를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태어나게 한다. 이는 하나의 예술 작품에 대해 그 작품 자체를 그대로 둔 채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석된 물리적 실체는 각기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하지만 해석은 예술가가 의존하는 예술 이론과 예술사적 지식의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아무 해석이나 다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단토의 성찰에 따르면, 물리적 실체로서의 대상이 가지는 지각적 성질에서 미의 본질을 추구했던 예술의 역사는 워홀 이후 종언을 고하게 된다. 다시 말해 예술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적 회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예술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본질로 삼게 되는데, 단토는 이를 ㉠ '예술의 종말'이라고 불렀다. 예술의 역사적 변천은 예술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밝혀질 때 끝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다른 예술보다 더 진실하거나 더 본질적인 예술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예술이 필연적으로 그러해야만 하는 방식 역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8. 워홀의 <브릴로 상자>에 대한 단토의 생각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예술가의 제작 의도와는 무관한 독립적인 미적 감상의 대상이다.
- ② 친숙한 대상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③ 예술계가 공유하는 인식의 맥락 속에서 대상을 해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④ 이 상자들은 만들 당시에 예술가가 가졌던 특수한 심적 상태를 보여 준다.
- ⑤ 물리적 대상과 예술 작품 사이의 경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9. <보기>와 단토의 예술에 대한 시각 차이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미메시스(Mimesis) 이론은 예술이 진정한 가치를 지닌 무엇인가를 모방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에 의해 정립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운명이던 사물이나 풍경의 모습이던 이상적인 원형이 따로 있으며, 그 원형을 최대한 모방하고 재현하여 감상자들에게 원형의 세계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술이다. 이는 예술을 진리에 부속된 것, 진리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노력으로 여기는 시각이다.

- ① <보기>는 원형의 물리적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예술의 목표로 보았고, 단토는 원형에 담겨 있는 정신적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예술의 목표로 보았다.
- ② <보기>는 예술 작품이 원형의 미를 추구하는 데 가치가 있다고 보았고, 단토는 예술 작품이 구현하고 있는 의미에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 ③ <보기>는 모방의 대상 자체보다 그것의 표현에 더 가치가 있다고 보았고, 단토는 모방 대상 자체의 의미가 더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 ④ <보기>는 원형에 담겨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고, 단토는 원형을 토대로 하여 작품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된다고 보았다.
- ⑤ <보기>는 예술 작품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았고, 단토는 예술 작품의 표현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10. 단토의 입장에서 ㉠ '예술의 종말' 이후 예술의 변화를 추론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 작품이 갖는 정체성의 변화가 가능하게 된다.
- ② 예술은 대상의 미적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는 통념이 무너진다.
- ③ 예술가의 해석이 예술 작품의 외관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 ④ 작품에 대한 해석이 예술 이론과 예술사적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
- ⑤ 예술 작품으로 표현할 물리적 대상을 선택하는 데 제한을 두지 않게 된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운석은 소행성 혹은 다른 행성 등에서 떨어져 나온 물체가 지구 표면에 떨어진 것으로 우주에 관한 주요 정보원이다. 1984년 미국의 탐사대가 남극 지역에서 발견하여 ALH84001(이하 ALH)이라고 명명한 주먹 크기의 운석도 그것의 한 예이다. 여러 해에 걸친 분석 끝에 1996년 NASA는 ㉠ ALH가 화성에서 기원하였으며, 그 속에서 초기 생명의 흔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미세 구조물이 발견되었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 운석이 화성에서 왔다는 증거는 ALH에서 발견된 ㉡ 산소 동위 원소들 간의 구성비였다. 이 구성비는 지구의 암석에서 측정되는 것과는 달랐지만, 화성에서 온 운석으로 알려진 스닉스(SNCs)에서 측정된 것과는 일치했다.

성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스닉스는 화산 활동에서 만들어진 화산암으로, 산소 동위 원소 구성비가 지구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지구의 물질은 아니다. 소행성은 형성 초기에 급속히 냉각되어 화산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구에 화산암 운석을 보낼 수 있는 천체는 표면이 고체인 금성, 화성, 달 정도다. 그런데 방사성 동위 원소로 측정된 결과 스닉스는 약 10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질학적 분석 결과 그 시기까지 달에는 화산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화산암이 생성될 수가 없었다. 금성과 화성에는 화산 폭발이 있었지만 계산 결과 어떤 화산 폭발도 이들 행성의 중력권 밖으로 파편을 날려 보낼 만큼 강력하지는 않았다. 커다란 운석의 행성 충돌만이 행성의 파편을 우주로 날려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성은 농밀한 대기와 큰 중력으로 인해 파편 이탈이 쉽지 않으므로 화성이 유력한 후보로 남게 된다. 그런데 스닉스에서 발견된 모(母)행성 대기의 기체 일부가 바이킹 화성 탐사선이 분석한 화성의 대기과 구성 성분이 일치했다. 따라서 스닉스는 화성에서 왔을 것이며, ALH 역시 화성에서 기원했을 것이다. ALH에서 발견된 ㉢ 이황화철(FeS<sub>2</sub>)도 화성의 운석에서 흔히 발견되는 성분이다.

ALH의 기원이 밝혀진 이후 이 운석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시작되었다. 먼저 루비듐(Rb)과 스트론튬(Sr)을 이용한 방사성 연대 측정을 통해 ALH의 나이가 화성과 비슷한 45억 년임이 판명되었다. ALH가 화성을 언제 떠났는지는 우주 복사선 효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운석이 우주 공간에 머물 때는 태양과 은하로부터 오는 복사선의 영향으로 새로운 동위 원소인 ㉣ 헬륨3, 네온21 등이 생성되는데, 그들의 생성률과 구성비를 측정하면 운석이 우주 공간에 머문 기간을 추정할 수 있다. ALH는 1,600만 년을 우주 공간에서 떠돌았다. ALH가 지구에 떨어진 시점은 ALH에 포함된 또 다른 동위 원소인 탄소14를 사용해 계산하였다. 측정 결과 ALH는 13,000년 전에 남극에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ALH의 표면에는 갈라진 틈이 있었고, 이 안에서 20 $\mu$ m~250 $\mu$ m 크기의 둥근 ㉤ 탄산염 알갱이들이 발견되었다. 탄산염은 물에 의해 생성되거나 생물체의 활동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생명의 존재를 시사한다. 이 탄산염이 혹시 지구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연대 측정을 해 본 결과 36억 년 전에 형성된 것이었다. 생물체가 분해될 때 생성되는 탄소 화합물인 '여러고리방향족탄화수소(PAH)'도 검출되었다. PAH 역시 외부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ALH에서 PAH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 안쪽으로 갈수록 농도가 증가하였다. 이것으로 외부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었다. 탄산염 안에서 발견된 ㉥ 자철석 결정도 박테리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자철석 입자들이 모여 생성된 것과 그 형태가 흡사했다. 생물체의 존재에 대한 증거는 전자 현미경 분석에서 나왔다. 지구의 박테리아와 형태가 비슷하지만 크기는 매우 작은 25nm~100nm 정도의 미세 구조물들이 탄산염 알갱이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연구진은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 이것을 36억 년 전 화성에 살았던 미생물이 화석화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11. 위 글에서 추측할 수 있는 연구와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연구	결과 해석
①	달에 대한 지질학적 분석	스닉스가 달에서 오지 않았다.
②	금성의 중력과 대기 밀도 측정	스닉스가 금성에서 오지 않았다.
③	스닉스의 암석 성분 분석	스닉스가 소행성에서 오지 않았다.
④	스닉스에 포함된 산소 동위 원소 구성비 분석	스닉스가 지구의 것이 아니다.
⑤	스닉스의 형성 연대 측정	스닉스가 우주에서 10억 년 동안 떠돌았다.

12. ALH에서 발견된 ㉠~㉥ 중, ㉠과 관계가 없는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보기>의 '㉧~㉬'이 모두 사실이라고 할 때, ㉭에 대한 반박의 증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보 기>

㉧. ALH를 제외한 화성에서 온 다른 운석에서는 탄산염 알갱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 생명 현상과 무관한 화학 물질 혼합물에서도 50nm 정도의 미세 구조물이 생길 수 있다.

㉩. 우주 복사선은 DNA나 단백질과 같은 분자를 파괴하여 생명 현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 PAH는 지구뿐 아니라 우주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물리적으로 생성된 탄소질 운석에서도 발견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4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의 줄거리]** 가상 국가에 있는 어느 마을의 전범자 처리 과정에서 무고한 청년 아벨만이 전범자로 몰린다. 해방국(解放國)에서 파견된 연락관은 그를 풀어 주고 대신 마을 유지들을 체포한다.

- 작 가 (……)이걸 보세요.  
(작가가 연락관에게 종이를 넘긴다.)
- 연락관 이게…… 사령관 각하…….  
(연락관의 표정이 글을 읽어 가며 묘하게 변한다.)
- 작 가 기분이 좋죠? 사령관에게 당신의 능력, 우정 뭐 그런 걸 칭찬하고 당신 같은 우수한 연락관을 보내 주어 감사하다는 글입니다.
- 연락관 그래서요?
- 작 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건 사본입니다. 진본은 주민들 중의 한 사람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진본 밑에 우리 자치위원회의 전원이 서명을 해 발송할 것입니다. 어때요? 문장이 좋죠? 10년 만에 처음 써 본 명문장입니다. 당신은 또 출세를 합니다.
- 연락관 이런 걸 내가 요구했던가요? 과분한 칭찬에다 말씀대로 훌륭한 문장이기는 하지만.
- 작 가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좀 겁니다. 20년의 역사가 담긴 글이니까요. 이것도 사본입니다. 진본은 주민 중의 한 사람이 보관하고 있어 언제든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발송하는가? 이것은 나와 또 한 사람밖에 모릅니다. 읽어 보세요.  
(연락관은 의자에 앉아 글을 읽는다. ㉠ 작가는 일어나 연락관의 표정을 읽으며 제자리걸음을 한다.)
- 작 가 귀찮겠지만 끝까지 읽으세요.  
㉠ (연락관이 그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진다.)  
홍, 당장 효과가 있군요.  
(연락관이 종이를 던진다.)  
어떻습니까? 왜 다 읽을 생각이 없습니까?  
(연락관이 일어나 뒷짐을 지고 움직인다.)  
……기대가 빛나가는데요. 당신이 폭발할 줄 알았습니다.
- 연락관 이런 글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 이 글을 누구한테 보내는지는 몰라도…… 무서운 글이군. 내가 정신병자에다 폭군에다 복수의 화신에다…… 여기에 온 목적이란 오직 20년 전의 일에 대해 복수를 하기 위해서…… 홍, 국가 간의 신의를 좀먹고…… 홍…… 식량 배급과 원조 물자를 미끼로…….
- 작 가 ㉡ 아벨만의 재판을 악용, 지도급 인물을 체포하고…….
- 연락관 닥쳐…… (작가의 떡살을 쥐고) 쓸모가 없는 놈! 나는 언제든지 너 같은 놈을 죽일 수 있어. 쥐도 새도 모르게. (작가를 밀어 버린다. 작가는 의자에 주저앉는다.)  
역시 이 교장의 인간들은 믿을 수가 없어. 이런 글을 믿어 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 작 가 믿을걸요. 왜냐하면 내가 그 글을 썼으니까요. 설사, 믿지를 않아도 효과는 있을 겁니다. 당신은 해방국의 인종이 아닙니다. 시민권을 얻고 귀화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약점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출세했습니다. 하는 일에 실수가 없었고, 주위에서 잡음이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당신을 규탄하는 그 글이 최소한 잡음은 일으킬 겁니다. 뿐인가요? 내 글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쓸데없는 소립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두 번 죽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미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창작을 하지 않는 작가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자, 연락관 당신에 대한 찬사나 고발장을 다 읽었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는 무슨 수를 써서도 발송될 겁니다. 이것은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어느 쪽을 택하겠소. 한쪽 글은 당신의 출세를 촉진시키고 또 한쪽은 당신 주위에 잡음과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홍, 어떻습니까? 참 비열한 수단이죠? 그렇지만…… 양자 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비열한 수단이 척척 맞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나 좋고 너 좋고. 아직도 칼자루는 당신이 쥐고 있어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 이러한 수단을 쓰지만 당신이야 도도한 태도로 양자 간을 취사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수는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충격을 주었으니까. 무서운 집념도 가산할 만하지만 그러나 집념이 지나치게 가열되면 유치한 결과를 내지. 당신의 복수에 대한 집념은 유치합니다. 원수를 때려잡고, 아버지의 새로운 전기를 써서 효자가 되는 유치한 결과를 냅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고발장이 발송됩니다.

(㉢ 잠시 침묵이 흐른다. 작가가 술병을 든다.)

이런! 술이 다 떨어졌군! 따라서 나의 용기도 시들겠군. ……20년 전의 그 땅을 도로 찾고 싶습니까? 지금은 아까, 그 미망인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나 같으면…… 고향에 돌아오기가 무섭게 그 미망인하고 결혼을 하는 데 전력을 다했을 겁니다.

연락관 ㉣ 그 미망인은 젊더군.

작 가 죽은 남편과 한 30년의 연세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미 늦었지. 당신을 싫어할 테니까. 글썄,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면 몰라도…….

(읍장 일행이 나온다.)

읍 장 실례가 안 됩니까?

작 가 우리의 우정에 찬 대화는 다 끝났습니다.

읍 장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관 나한테요?

읍 장 네, 우리 넷이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았습니다. …… 결국 이렇게 된 것은…… 그 옛날 사건 때문인데…… 그때 그 일은 누가 악의에 차서 한 일도 아니고…… 뭐 건잡을 수 없는 여론의 물결 때문에 다 말려든 것이지만…… 그 일 때문에 연락관님에게 피해를 주었으니…… 우리 사과합니다.

(교장이 머리를 끄덕인다.)

우리야 괜찮지만…… 가능하면 이 여자 분들이라도…….

연락관 좋습니다. 그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당신들을 석방합니다.

(모두 놀란다.)

- 이근삼, 아벨만의 재판 -

14. 위 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상 국가는 해방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 ② ‘연락관’은 해방국으로 귀화한 후 자기의 고향에 부임하였다.
- ③ ‘작가’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10년 전에 창작 활동을 포기하였다.
- ④ ‘연락관’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을 유지들에게 복수하려 한다.
- ⑤ ‘미망인’의 남편은 20년 전 사건과 관련하여 ‘연락관’의 부임 이후에 죽임을 당했다.

15. 위 글을 연극으로 상연할 때, ㉠~㉤에 대한 연출가의 지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작가’의 행동은 두려움을 떨쳐 버리기 위해 애쓰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해.
- ② ㉡: ‘연락관’은 글 내용에 대한 불쾌감과 ‘작가’의 저의를 의심하는 심리를 표현해야 해.
- ③ ㉢: ‘작가’는 차분하게 말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해 자기의 의도대로 물고 가려는 태도를 드러내야 해.
- ④ ㉣: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뒤에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동안의 긴장감이 표현되어야 해.
- ⑤ ㉤: ‘미망인’에 대한 관심의 표현과 더불어 ‘연락관’의 심경 변화가 어조를 통해 나타나야 해.

1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특정인의 대사를 통해 사건과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ㄴ. 현재의 장면과 과거의 장면을 교차시키며 갈등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ㄷ. 현실 정치 세계의 냉정함과 비열함을 우의적(寓意的)으로 드러내고 있다.  
 ㄹ. 등장인물 내면의 움직임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사람이 간의대부(諫議大夫) 양성(陽城)에 관해 물었다.  
 “그분은 ㉠ 도(道)가 있는 선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문이 넓고 남에게 이름이 알려지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진(晉) 지방에 살았는데, 그의 덕(德)에 감화되어 선량하게 된 이가 수천 명이나 됩니다. 대신이 이를 듣고 천자에게 추천하였는데, 사람들은 모두 영예로운 일로 여겼으나 홀로 기쁜 기색이 없었고, 벼슬자리에 5년이나 있었지만 그 덕을 보면 초야에 있던 때와 같습니다. 이런 분이 어찌 부귀 때문에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역경』에 이르기를 ‘덕이 항상(恒常)되면 바르나 남자로서는 흉할 것이다.’ 하였으니, 양성을 어찌 도가 있는 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역경』 고패(蠱卦)에서 말하기를 ‘임금을 섬기지 않을 때는 자기의 일을 고상히 지킨다.’ 하였고, 전괘(蹇卦)에서 말하기를 ‘임금의 신하는 충성을 다해야 하니 자신을 위한 때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처신하는 때가 같지 않고, 그에 따라 덕행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 지금은 양성이 벼슬에 나아간 지 꽤 지나 정치에 관해 익히 알고 있으며, 천자의 대우도 융숭합니다. 그런데도 정치의 득실을 마치 남의 일 보듯이 하니, 그의 마음에 기쁨이나 슬픔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듣자 하니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이 직책을 다할 수 없으면 떠나야 한다.’ 했는데, 지금 그는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가 녹봉을 위해 벼슬을 맡은 것입니까?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벼슬은 가난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다.’ 하였는데, 그렇다면 마땅히 높은 자리는 사양하고 낮은 벼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그는 윗사람을 비방하기 싫어하고, 신하로서 임금의 잘못을 들추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저어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간언(諫言)도 하고 주장을 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그대에게 좋은 생각이나 피가 있으면 곧 들어가 안에서 임금께 고하고, 그대는 밖에서 이에 따르면서 그 생각과 피는 오직 우리 임금의 덕이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 나는 이렇게 응답하였다.  
 “만약 그의 마음 씀이 그렇다면 이야말로 미혹된 것입니다. 그런 일은 대신과 재상들이 할 일이지, 양성이 할 일이 아닙니다. 간관(諫官)이라면 마땅히 그의 직무를 받들어 사방의 사람들과 후손들로 하여금 조정에 곧은 말을 하는 강직한 신하가 있어, 천자에게서는 함부로 상(賞)을 내리시는 일이 없고, 간언을 물 흐르듯이 따르시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숨어 사는 선비들이 이를 듣고 궁궐 아래로 나아가 의론을 펼치고자 할 것이니, 임금의 명성이 요순(堯舜)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양성의 마음이 어찌 임금으로 하여금 자신의 허물을 듣기 싫어하도록 하는 데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같이 하면 임금을 그 쪽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말하였다.

“양성은 명성이 나기를 구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이를 알게 되었고, 임용을 원하지 않았으며 임금께서 그를 썼습니다. 부득이 벼슬을 하게 되었지만 자기의 도리를 변함없이 지켜 왔거늘, 어찌 그대는 심하게 비난하는 것입니까?”

내가 다시 대답하였다.

“예로부터 성인이나 현명한 선비들은 알려지거나 쓰이는 데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를 깨치면 홀로 간수하지 않고 반드시 온 천하를 전지고자 쉬지 않고 노력하여, 죽은 뒤에나 그치고자 할 따름입니다. 이는 스스로 편안히 지내는 즐거움을 알면서도, 천명(天命)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곤궁함을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듣건대, 군자는 남을 공격하려 하지 않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끝내고 여기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당

(라) 신의 논의는 곧기는 하나, 덕을 손상시키며 말을 과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을 다해 남의 허물을 들추기 좋아하는 것은 옛날 국무자(國武子)가 제(齊)나라에서 죽임을 당한 까닭이니, 당신도 그 일을 들으셨지요?”

이에 내가 대답하였다.

“군자는 지위에 있으면 죽음으로 관직을 수행할 것을 생각하고, 지위를 얻지 못하면 말을 다듬어 도를 밝힐 것을 생각합니다. 나는 올바른 도를 밝히려는 것이니 곧은 체하면서 남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자는 선인(善人)을 만나지 못했으면서 어지러운 나라에서 할 말을 다하기를 좋아하여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양성은 비록 도를 터득한 선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선인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한유, 쟁신론(爭臣論) -

17. ㉠의 자세에 대해 ‘어떤 사람’과 ‘내’가 공유하는 견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덕행의 방식을 바꾼다.
- ㄴ. 스스로 곧은 체하면서 남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 ㄷ. 벼슬자리에 있더라도 명성을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
- ㄹ. 직책을 수행하는 데 망설임이 없어야 하고, 그럴 의지가 없으면 자리에서 물러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8. (가)~(마)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고전(古典)이 언급하는 바와 대상 인물의 처신이 일치하지 않음을 들어 상대방을 비판한다.
- ② (나)는 상대방이 대상 인물의 처신을 오인했음을 지적하고, 고전의 언급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 ③ (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옳다고 해도 그것을 현실에서 확인할 수 없음을 들어 재반박한다.
- ④ (라)는 상대방의 말하는 태도를 비판하며, 고사(故事)를 인용하여 경고한다.
- ⑤ (마)는 상대방이 활용한 고사를 보충 해석하여 자신을 변호하고 상대방을 반박한다.

19. 신하의 행태에 관한 다음 진술 중 ‘내’가 바라본 양성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세상사에 초연한 듯 임금의 공과를 보고서도 남의 일처럼 여기고, 고상한 덕만을 지키며 말은 바 임무를 게을리 한다.
- ② 나라만을 생각하여 자기의 집은 잊어버리고, 용감히 나서서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다만 충성을 다한다.
- ③ 고금의 학문에 정통하고 언변에도 능하지만, 조정의 일에는 어두워 그 배운 바를 제대로 펼치지 못한다.
- ④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감싸 주어 신망이 높으나, 기회를 보아 전원으로 돌아가 유유자적하기를 원한다.
- ⑤ 남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며, 어질고 신의가 있어 못 백성이 그를 어버이처럼 따른다.

[20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개의 진술이 동시에 옳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두 진술은 서로 대립한다고 말한다. 그 진술들이 대립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순 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반대 관계’이다. 모순 관계는 어느 한 진술이 옳으면 다른 진술은 그를 수밖에 없는 관계이고, 반대 관계는 둘 다 옳을 수는 없지만 둘 다 그를 수는 있는 관계이다.

이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여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자유 의지’와 ‘결정론’의 문제가 한 예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의지의 자유를 믿는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할 때, 또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때 나는 내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자유 의지가 없다면 나는 로봇과 다름없는 존재이고,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결정론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선행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결정론이 옳으면 우리의 모든 행동도 앞선 원인의 결과이므로 사람들은 자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신이나 운명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주장과는 다르다. 결정론에서는 현재 상태가 달라지면 미래도 바뀐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결정론은 인과적으로 결정되는 사건들도 있지만, 적어도 사람의 행동은 선행 원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비결정론은 그런 행동은 자유롭다고 주장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인과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자유 의지는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원인이 없는 사건은 나의 통제를 벗어나 있고 그것은 나의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 결정론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자유 의지가 없다는 딜레마가 나타난다. 자유 의지는 결정론과 비결정론 어느 쪽과도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해결책 중 하나는 결정론과 비결정론 이외에 제3의 길이 있어서 그리로 피해 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성공하지 못한다. 결정론과 비결정론은 서로 모순 관계에 있는 주장이므로 두 이론 중 하나는 반드시 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을까? 결정론을 ‘엄격한 결정론’과 ‘온건한 결정론’으로 구분하면 된다. 엄격한 결정론은 결정론과 자유 의지가 양립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온건한 결정론은 양립 가능하다고 본다. 결정론과 자유 의지가 양립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행동에 원인이 있으면 그 행동에는 자유 의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인이 있다고 해서 꼭 자유 의지가 없다고 해야 할까? 그 원인이 외부의 강제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자유 의지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다른 식으로 행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원인이 있다고 해도 내가 다른 식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면 자유 의지는 있는 것이다. 나는 다른 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경우에 행동의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결국 온건한 결정론자들은 자유 의지 주장과 모순 관계인 것은 결정론이 아니라 강제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자유 의지와 결정론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

2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비결정론자는 결정론과 비결정론이 모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② 비결정론자는 자유 의지가 있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일에 원인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③ 엄격한 결정론자는 강제에 의한 행동에는 원인이 없다고 생각한다.
- ④ 온건한 결정론자는 원인이 있다는 것과 강제는 양립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⑤ 온건한 결정론자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21. ㉠의 추론 과정을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위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보 기>

(가) 결정론이 성립하거나 비결정론이 성립한다.  
 (나) 결정론이 성립한다면 사람은 자유 의지를 갖지 못한다.  
 (다) 비결정론이 성립한다면 사람은 자유 의지를 갖지 못한다.  
 (라) 따라서 사람은 자유 의지를 갖지 못한다.

- ① <보기>의 ‘비결정론’ 자리에 결정론과 반대 관계가 되는 이론을 대입하면 딜레마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가)가 필연적으로 옳은 진술이기 때문에 이 딜레마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온건한 결정론자들은 (나)의 진술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여 딜레마에서 빠져나온다.
- ④ 진술 (가), (나), (다)가 옳다면 (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 ⑤ (라)가 도출되는 것은 진술 (나)와 (다)가 서로 반대 관계이기 때문이다.

22. 온건한 결정론자에 대한 반박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디까지가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강제에 의한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데, 당신은 자유 의지와 강제를 구별한다.
- ②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어떤 노력을 하든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데, 그것은 다른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유 의지가 없게 된다.
- ③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생각한 행동도 나쁜 결과에 대해 위협을 느껴 결정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든 행동은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나는 자유 의지에 의해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게 다른 식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유 의지가 있다는 당신의 주장은 옳지 않다.
- ⑤ 행동의 원인이 되는 사건들의 연쇄를 내가 태어나기 이전까지 따라갈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식으로 행동할 수 없으므로, 원인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23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황] 종합병원 의사와 직원들이 모여서 본부 김 실장의 처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한순규 선생은 그 연배에서 좋은 평을 받지 못하는 편에 속하고 있었다. 그는 정실에 의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고 촌지에 의해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것으로 유명했다. 후배에게 기술 전수도 내켜 하지 않는 것으로 못 박힌 터였다.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인물은 중심 세력에 들 수 없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 인물이 이제 와서 책임자 급으로 부상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맛보게 될 것이었다. 백옥현은 과장의 심정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긴 했지만 과장이 너무 오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는 일이 즐겁지 않음은 사실이었다. 그는 과장의 잔을 채웠다.

“많이 마셨어. 조금만…….”

과장은 손을 저었다. 그러고는 잔을 입에 대는 시늉을 하고는 하던 말을 계속했다.

“그 친구가 되어서는 말이야…… 대외적으로도 낮이 서질 않아. 더욱이 자릴 얻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처신을 해야 한다면 후배들한테도 좋은 관례가 되지 못하는 게야.”

“그렇습니다. 저는 본부에서 편지를 내야겠습니다.”

윤기호 선생은 한순규 선생을 책임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연 판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아직 확정된 사실도 아니지 않습니까?”

백옥현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일을 총괄하는 자가 김 실장임을 잊지 않은 때문이었으리라. 백옥현은 그 사실을 기억하는 한 학문계의 전념 그 외의 것은 한사코 아무 것도 아닌 일로 치부하고 싶은 터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여론 조성이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이야.”

윤기호 선생이 말했다. 어차피 이곳의 동태가 모조리 그쪽에 의해 파악되고 있는 형편인 만큼. 덧붙였다.

“그 정도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역반응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를 일입니다.”

백옥현의 말이었다.

“패배 의식에 젖어 있어.”

“사태를 바로 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쪽은 허수아비가 되고 말겠지.”

윤기호 선생은 두 눈을 부릅떴다. 흥진기 주임의 입가에는 보일 듯 말 듯한 실소가 떠올랐다. 내 원수 남이 갚아 준다. 그의 머릿속에 맴도는 말이었다. 그때 박 실장이 그를 향해 눈을 찡긐했는데 흥진기 주임은 못 본 척했다. 윤기호 선생의 분개가 어느 면에서는 고소하면서도 마냥 좋아라 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그 동안의 끓는 냄비 속 같던 분위기가 냉각되면서 어떤 요구 사항도 제시할 수 없게 된 것은 본부의 개입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어떤 변화도 용납지 않는다는 본부의 방침이 전해지면서 검사실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지질 않았던가. 무엇보다 그는 A, B, C 세 파트 중 C파트의 주임으로 격하된 것이었다. A, B의 주임은 4년제 대학 출신들이 말았었다. 그러면서 4년제 출신들은 그들끼리 원을 만들기 시작했었다. A, B파트의 주임들은 주임이 되기 전 누구보다도 검사실 개혁을 소리 높여 주장했던 터

였지만 주임이 되면서 태도를 달리했던 것이다.

(중략)

“윤 선생 말이 옳은 게야.”

적어도 우리의 대표자를 선발하는 문제만큼은 이쪽이 결정권을 쥐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일이기도 하니깐. 과장의 말이었다. 상징적인 의미. 얼마 동안 백옥현은 그 부분에 공감했다. 집단과 집단이 부딪칠 때 최소한의 모양새를 갖추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상처를 입게 됨은 자명한 일일 터였다. 그러나 김 실장 측은 그와 같은 배려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무엇보다 이곳의 원로들은 별반 신뢰하지 않는 터인 듯했다. 행정적인 일에 마음을 쓴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본업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단적인 증거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백옥현은 크게 부정할 수도 없질 않았던가. 그가 아는 대부분의 원로들은 학문적인 성취를 위해 매진할 수 없는 입장들 때문인지 행정 직함을 더욱 높이 평가하는 것 같은 분위기에 젖어 있는 듯했기 때문이었다. 그와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학문적인 발전은 더딜 게 자명한 일이었다. 백옥현은 그런데 본업에 전념하고 싶었으므로 행정직을 대단하게 여기는 듯한 발상을 무너뜨리고 싶기도 한 터였다. 또한 이와 같이 둘러앉아 열을 내어 분개하고 목청을 높이는 것 자체가 본부의 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것 같았기에,

“우리에게는 우리 고유의 본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매진하면 될 것입니다. 누가 책임자가 되든 그런 것은 다 허울에 불과한 일이 아닐까요.”

안타까운 어조로 말했다. 과장의 눈에 배반감과 분노, 그리고 실망의 복합적인 감정이 떠올랐다 스러졌다. 그는 문득 소문이라는 것이 모두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형편없이 짧은 축들을 부상시킨다. ① 짧은 축들은 난데없이 떨어져 내린 자신들의 이익을 고려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짧지 않은 짧은 것에 대한 실망감은 여전히 앙금처럼 가슴에 남아 있었다. 백옥현을 대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진 과장과 윤기호 선생의 시선이 저절로 부딪쳤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상대방의 눈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 김향숙, 수레바퀴 속에서 -

23.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사 문제에서 발단한 화제가 직장의 주도권과 관련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 ② 사건에 대한 반응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자기중심적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 ③ 사건의 순서에 따라 이야기를 서술하는 순차적 구성 방법을 취하고 있다.
- ④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 따라 초점이 되는 등장인물이 교체되고 있다.
- ⑤ 등장인물의 행동보다 그들의 심리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24.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윤기호와 과장이 시선을 부딪치는 것을 통해, 두 사람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한순규를 비난하는 과장에게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통해, 백옥현이 한순규의 승진을 반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원로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본업에 대한 강조를 통해, 본부와 의 마찰을 회피하고 싶은 백옥현의 속내를 알 수 있다.
- ④ 흥진기가 흘리는 실소를 통해, 백옥현에 대한 윤기호의 비판이 흥진기와 윤기호의 사전 계획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⑤ 과장에 동의하지 않는 백옥현의 행동과 그를 걸끄럽게 대하는 과장의 태도를 통해, 둘의 오랜 적대 관계를 알 수 있다.

25. ㉠에 근거하여 ‘과장’이 ‘젊은 측들’에게 할 수 있는 비판과 시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바람 소리 한 가닥  
모래 위에 떨어져 있다  
그걸 주워서 만져 보고  
귀에도 대 본다
- ②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의 하나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서둘러 고독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기다림으로 채워 간다는 것입니다
- ③ 이따금  
바람은 한려수도에서 불어오고  
느릅나무 어린잎들이  
가늘게 몸을 흔들곤 하였다.
- ④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이밭소 앞에 서서 참외를 깎고  
목로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켜면  
모두들 한결같이 친구 같은 얼굴들
- ⑤ 우리는 때 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26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8년부터 미국에서 수행된 ‘여성건강연구’는 50세에서 79세의 여성 16,608명을 대상으로 ‘폐경 후 호르몬 대체 요법(PHT)’의 질병 예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교 대조군 임상 연구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 중 8,506명에게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젠과 프로게스틴의 복합 제제를 투여하고, 8,102명에게는 위약(偽藥)을 투여하였다. 피험자들은 두 군에 무작위로 배치되었으며, 눈가림법을 썼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약을 투여받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이 연구는 2002년 5월, 원래 예정했던 추적 관찰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그 이유는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은 여성들에게서 이 요법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익보다 위험이 더 크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위약 투여군과 비교할 때 호르몬 대체 요법군에서는 유방암의 위험성이 26%, 심장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29%,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41%, 폐혈전색전증(혈전으로 인해 폐혈관이 막히는 병)의 위험성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자궁내막암의 발생 빈도는 호르몬 대체 요법군과 위약 투여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위약 투여군과 비교할 때 호르몬 대체 요법군에서 엉덩이뼈 골절의 위험성이 33%, 대장암의 위험성이 37%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는 호르몬 대체 요법군에서 해로운 사건이 15% 더 많이 일어났다. 그렇다고 해서 호르몬 대체 요법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는 10,000명의 여성이 있다면, 받지 않는 여성에 비해 연간 유방암은 8명, 심장 혈관 질환은 7명, 뇌혈관 질환은 8명, 폐혈전색전증은 8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 대장암은 6명, 엉덩이뼈 골절은 5명 정도가 각각 감소한다.

이 ‘여성건강연구’ 결과는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은 여성에 대한 이전의 일반적인 관찰 연구 결과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일반적인 관찰 연구에서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는 여성은 받지 않는 여성보다 체중이 덜 나가며, 혈압이 낮고 지질 대사도 더 양호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변수들은 독립적으로 심장 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낮춘다. ‘건강한 소비자 효과(healthy user effect)’라고 하는 이런 현상은 다른 변수로 인해 연구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 중 하나이다. 의사들 또한 호르몬 대체 요법을 시행할 때 상대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여성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유방암 위험 요소가 있는 여성에게는 호르몬 대체 요법을 시행하지 않는데, 그 때문에 관찰 연구에서는 유방암의 발생 숫자가 낮게 나타난다. 한편,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꾸준히 잘 먹는, 즉 순응도가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감소한다. ‘순응도 바이어스(compliance bias)’라고 하는 이런 현상 역시 일반적인 관찰 연구에서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또한 ㉠ ‘여성건강연구’에 나타난 이러한 차이는 에스트로젠과 프로게스틴을 함께 경구 투여(經口投與)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복합 투여 방식이 가장 널리 처방되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피험자의 월경이 재개되지 않아서 눈가림법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프로게스틴은 지질 대사와 인슐린 감수성에 대한 에스트로젠의 긍정적인 작용을 저해하고, 또한 유방암의 발생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게다가 여성 호르몬 제제를 경구 투여하면 폐혈전색전증의 발생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들

을 경구 투여하면 간에서 일차 대사가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몇몇 혈액 응고 인자의 생산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설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6. 위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호르몬 대체 요법은 암에 걸린 여성 환자에게 주로 처방되었을 것이다.
- ② '여성건강연구'에는 '건강한 소비자 효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 ③ '여성건강연구'에서는 위약을 투여함으로써 피험자의 순응도를 높였을 것이다.
- ④ '여성건강연구'에서 눈가림법을 쓴 것은 피험자의 월경 재개를 막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 ⑤ 이전의 일반적 관찰 연구에서는 호르몬 대체 요법의 효과가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27. <보기>의 연구를 통해 ㉠의 가설이 사실로 입증되었다면, ( ) 안에 들어가야 할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 기>

연구 A : 에스트로젠을 단독 투여하여 '에스트로젠 + 프로게스틴'의 복합 투여 결과와 비교한 연구  
→ ( ㉠ )에서 유방암의 발생 비율이 더 ( ㉡ ).

연구 B : '에스트로젠 + 프로게스틴'을 피부 패치를 통해 투여하여 경구 투여 결과와 비교한 연구  
→ ( ㉢ )에서 폐혈전색전증의 발생 비율이 더 ( ㉣ ).

- |          |    |           |    |   |
|----------|----|-----------|----|---|
|          | ㉠  | ㉡         | ㉢  | ㉣ |
| ① 복합 투여군 | 높다 | 경구 투여군    | 낮다 |   |
| ② 복합 투여군 | 낮다 | 피부 패치 투여군 | 높다 |   |
| ③ 단독 투여군 | 높다 | 경구 투여군    | 높다 |   |
| ④ 단독 투여군 | 낮다 | 피부 패치 투여군 | 낮다 |   |
| ⑤ 단독 투여군 | 낮다 | 피부 패치 투여군 | 높다 |   |

28. 의사인 김 박사에게 55세 여성 박 여사가 폐경 후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 '여성건강연구'의 결론으로 미루어 볼 때, 김 박사의 상담 내용 중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박 여사 :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으면 유방암에 걸린다는 게 사실인가요?

김 박사 : 그렇지 않아요. 그럴 가능성이 약간은 높아지지만 ㉠ 이 치료를 받는다고 모두 유방암에 걸리는 건 아니니까요. 대장암 같은 것은 오히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박 여사 : 다른 문제는 없나요?

김 박사 : 글썽요. ㉡ 자궁내막암의 위험이 있다면 이 치료는 안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 때문에 ㉢ 뼈가 약하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박 여사 : 그럼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 박사 : 먼저 기본적인 검사를 좀 해 보죠. 그런 다음 이 치료가 박 여사님께 정말 필요한지 따져 봐야겠습니다. ㉣ 지금 보아서는 체중이 좀 나가고, 혈압도 높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시겠네요.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29 ~ 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흔히 사회적 양극화로 표현되는 중산층의 위기는 중산층 붕괴 문제뿐 아니라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중산층 위기의 본질을 고찰하려면 먼저 중산층의 범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차원의 계층을 판별하고 주관적 차원의 계층 의식을 측정하여 두 차원 간의 조응 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전체 계층 구조 속에서 중산층을 객관적으로 판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계층적 위치는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기 때문에, 경제적 지표와 사회 문화적 지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제적 지표로는 직업·종사상의 지위, 가구 소득, 자산을 사용하고 사회 문화적 지표로는 교육 연수(年數)를 사용한다. 구체적인 중산층 판별에는 아래의 점수표를 사용하며, 점수의 합이 3 이상이면 '핵심적 중산층', 2이면 '주변적 중산층', 1 이하이면 '하층'으로 분류한다.

<중산층 판별 점수표>

측정 지표	판별 기준	점수
직업·종사상의 지위	고용주 및 상층 화이트칼라	2
	소규모 자영업자 및 하층 화이트칼라	1
가구 소득	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구 소득의 90% 이상	1
자산	국민 주택 규모 소유 이상	1
교육 연수	2년제 대학 졸업 이상	1

㉠ 이러한 계층 측정 방식은 계층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중산층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측정 지표로 선정된 판별 기준의 적합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측정 시점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변화를 추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주관적 차원의 계층을 판별하는 지표로는 계층 귀속 의식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중산층 귀속 의식'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는 집단과 동일시하는지를 이분법적으로 측정한다. 이와는 별도로 전체 계층 구조 속에서 개인의 주관적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중간층 귀속 의식'을 측정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층에서부터 상층에 이르는 계층의 단계를 선택지로 제시하고 자신이 속한다고 생각하는 범주를 고르게 하는 방식으로 측정한다. 이 척도 상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집단이 '중간층'으로 간주된다.

㉡ 귀속 의식을 이용한 계층 측정 방식은 개인이 자신의 계층적 위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평가한 결과라는 점에서 객관적 차원의 계층 판별이 보여 주지 못하는 상대적 측면을 포착하며, 중간층 또는 중산층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변화하는 추세를 잘 보여 준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계층을 인식하는 잣대가 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객관적 차원의 측정과 주관적 차원의 측정은 각각 장단점을 지닌다. 이들 두 차원의 측정을 결합하면 객관적 차원의 계층과 주관적 차원의 계층 간에 존재할 수 있는 괴리를 포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객관적으로는 중산층에 속하면서도 주관적으로는 중산층과 동일시하지 않는 집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불일치가 존재하는 집단에서 상대적 박탈감도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주관적 차원의 측정에서도 중산층 귀속 의식과 중간층 귀속 의식 사이에 차이가 발견된다. 통상적으로는 후자가 전

자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간으로 평가하는 일반적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산층을 판단하는 데에 사용되는 주관적 기준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29. 객관적 차원의 중산층 판별에 관한 진술로 타당한 것은?

- ① 중산층으로 판별된 사람의 가구 소득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구 소득의 90% 이상이다.
- ② 고졸 학력이면서 상층 화이트칼라인 사람은 핵심적 중산층으로 분류될 수 없다.
- ③ 직업·종사상의 지위와 자산은 중산층 판별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 ④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핵심적 중산층이 될 수 있다.
- ⑤ 중산층 판별 점수의 합의 최댓값은 6점이다.

30.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계층 구조상의 상층을 판별할 수 없다.
- ② 계층 판별의 단위가 ㉠에서는 가구이지만 ㉡에서는 개인이다.
- ③ ㉠은 계층의 양극화를 측정하고 ㉡은 계층의 불일치를 측정한다.
- ④ ㉠에서는 지표의 판별 기준이 측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에서는 계층을 인식하는 잣대가 모두에게 동일하다.
- ⑤ ㉠에서는 다수의 지표를 결합하여 단일한 방식으로 측정하지만, ㉡에서는 단일한 지표를 사용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한다.

31. 위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기>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2006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객관적 차원의 중산층 비율은 핵심적 중산층 약 35%, 주변적 중산층 약 32%로 두 층 모두 이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주관적 차원의 경우 중간층 귀속 의식과 중산층 귀속 의식은 각각 약 74%와 약 20%로 두 수치 모두 이전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리고 핵심적 중산층의 약 35%, 주변적 중산층의 약 12%, 하층의 약 6%만이 자신을 중산층과 동일시하고 있다.

- ① 객관적 차원의 중산층이 증가한 것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구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② 중간층 귀속 의식에 비해 중산층 귀속 의식이 낮은 것은 객관적 차원의 중산층 판별 기준이 높기 때문이다.
- ③ 중간층 귀속 의식과 중산층 귀속 의식이 이전에 비해 모두 떨어진 것으로 보아, 중산층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 ④ 객관적 차원의 중산층의 과반수가 자신을 중산층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 간의 괴리 정도가 중산층보다 하층에서 더 큰 것으로 보아, 중산층보다 하층에서 계층의 불일치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32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로마의 건국 신화에 따르면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다. 형제는 이 도시의 지도자를 결정하기 위해 새점[鳥占, *augurium*]을 친다. 새점의 결과에 불복한 레무스는 로물루스가 만든 도시 경계선을 무시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다가 형인 로물루스에게 살해된다. 그리고 로물루스는 왕이 되어 로마를 건국한다. 왕정은 폭정을 일삼던 마지막 왕이 쫓겨나면서 끝나고, 귀족들이 중심이 되어 원로원을 통해 타협과 견제로 국정을 이끌어 가는 공화정 체제가 성립되었다.

공화정 시기의 대부분 동안 로물루스의 이미지는 좋았다. 그는 대업 앞에서 혈육의 정을 돌보지 않은 엄격한 지도자였고, 전장에서는 탁월한 지휘관이었다. 특히 적장을 죽이고 빼앗은 전리품을 신전에 봉헌한 장군의 이미지가 공화정 시기 내내 강조된 것은 로마의 지속적인 팽창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로물루스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 실체가 모호한 신화적 존재였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 그에 관한 이야기가 쉽게 조작될 수 있었다. 따라서 전승 작가들은 기원전 3세기 이래 임의적으로 그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만들어 냈고, 그것들은 차츰 계통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뒤섞여 버렸다.

그 후, 공화정 말기 약 1세기 동안 지속되었던 내전기가 되면 로물루스의 이미지에 다른 측면이 덧붙여지게 된다. 이는 전공을 세운 장군들의 권력 장악 의도와 위상이 공화정 체제를 위협하던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원로원 의원이자 철학자인 키케로는 『의무론』에서 로물루스를 “독재가 더 편리하다고 여겨 (……) 동생을 죽인, 우애도 인정도 저버린 자”로 묘사한다. 한편 이 시기에 ‘제2의 로물루스’를 자처하던 장군들 중 가장 로물루스에 근접했다고 여겨지던 카이사르는 같은 책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그는 로마 인민의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었다. (……) 모든 살인 행위 가운데 가장 가증스러운 것은 ‘조국의 살해’일진대,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하단 말인가?” 뿐만 아니라 로물루스가 원로원 의원들에게 살해당했다는 변형된 설화도 이때 나타났다. 결국 종신 독재를 피하던 카이사르는 바로 그 ‘로물루스의 죽음’을 맞았다. 물론 내전 중에 로물루스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새로워지기도 했다. 이 시기에 새로이 강조된 로물루스의 이미지는 ‘원로원 의원들의 권위와 조언에 힘입어 군림했던’ 국부(國父)와 같은 것이었다.

기원전 30년,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는 내전을 종식시키고 로마의 일인자가 되었다. 그의 통치 시기에는 로물루스를 소재로 한 문학과 예술 작품을 예전보다 더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내전과 혼란이 종식되고 국가의 재건이 추진되던 상황을 불가피하게 건국자의 재림을 상징하게 하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원전 27년에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 아우구스투스라는 경칭을 수여하기로 결의하는 과정에서 로물루스라는 경칭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로물루스라는 경칭을 단념한다. 이는 로물루스와의 동일시가 영예와 정통성을 강화하는 선전 효과를 갖는 반면, 내전 속에서 형성된 로물루스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로물루스의 선전 가치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우구스투스는 그 양가적(兩價的)인 로물루스 신화의 유산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다. 즉, 로물루스와의 직접적 동일시를 포기하고 간접적 동일시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 선전 전략은, 실질적으로는 군주정이면서도 형식

적으로는 ‘프린켄스(제1 시민)’라는 이름을 내세워 공화정의 외양을 취한 그의 통치 체제와 존재 양태가 매우 흡사했다. 신의(神意)를 묻는 새점을 치기 위한 의식을 통해 성화된 상태를 가리키는 ‘*augustus*’라는 단어가 경칭으로 채택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32. 위 글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신화는 한 국가가 걸어온 역사를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 ② 신화는 앞선 시대의 실제 인물과 사건에 근거하여 형성된다.
- ③ 신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며 변한다.
- ④ 신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건국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나타난다.
- ⑤ 신화는 국가의 우월성을 과시하여 타 국가를 정복하는 명분으로 사용된다.

33. ㉠이 채택된 이유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 로물루스의 긍정적인 이미지만을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 ㉡. 신의 가호를 받는 성스러운 지도자임을 내세우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 ㉢. 엄격한 지도자의 재림을 기다리는 민의에 부응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 ㉣. 실질적으로 군주정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34. 로마 시대에 쓰인 <보기>의 두 시를 위 글과 연관 지어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가) 저 맹수들도 동족 간에 것처럼 분풀이를 하지는 않노라. 처절한 숙명, 형제를 죽인 사악한 행위가 로마를 이리 내몰고 있는 것이니. 부당하게 흘린 피가 이 땅을 적신 뒤, 그 저주가 후손들에게 씌워진 것이리라.  
- 호라티우스, 단시(기원전 40년경) -
- (나) 당신이 세운 성벽은 동생이 뛰어넘었지만, 그분은 그 성벽을 지켜 위대하게 만드셨지요. 당신은 지배자로 불렸습시다만, 그분은 프린켄스라는 호칭을 지녔습시다.  
- 오비디우스, 파스티(서기 2년경) -

- ① (가)에서 ‘맹수들’은 독재를 기도하는 장군들을 가리킨다.
- ② (가)에서 ‘숙명’은 내전이 형제 살해의 원죄에서 비롯했다는 인식의 표현이다.
- ③ (나)에서 ‘당신’은 카이사르를, ‘그분’은 아우구스투스를 지칭한다.
- ④ (나)에서 성벽을 뛰어넘은 행위는 공화정 체제에 대한 도전을 나타낸다.
- ⑤ (가)에서의 ‘형제’와 (나)에서의 ‘동생’은 서로 다른 인물을 가리킨다.

[35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노동 시장의 각종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만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는 것일까? ‘유연안정성’이라는 새로운 노사 관계 모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한 일부 유럽 국가들의 실험은 이 질문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용과 관련된 유연성과 안정성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유연성 개념은 해고와 채용을 통해 노동력을 수량적으로 조정하는 ‘외부적-수량적 유연성’, 해고를 자제하되 노동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내부적-수량적 유연성’, 작업 조직의 재편과 다기능 숙련 향상을 강조하는 ‘기능적 유연성’ 등으로 세분된다. 안정성 개념도 동일한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직장 안정성’, 동일한 직장이 아니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 안정성’, 실업이나 질병 등의 상황에서도 안정된 급여를 확보할 수 있는 ‘소득 안정성’, 출산이나 재충전 등의 기회를 확보해 일과 삶을 병행할 수 있는 ‘결합 안정성’으로 나뉜다. 유연안정성 모델에서는 이러한 유연성과 안정성의 특정 형태들 중에서 그 나라의 고유한 조건과 사회구성원들의 선호를 반영해 바람직한 배합을 선택하려 한다.

유연안정성 모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덴마크는 예전부터 역동적인 노동 시장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이나 영국에 버금갈 정도로 해고가 자유롭고 노동 이동도 빈번하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체감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사회적 타협의 오랜 전통을 통해 실직 기간 중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제공한다는 약속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연한 시장과 높은 사회 보장의 이러한 조합에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이 추가됨으로써 덴마크 시스템의 효율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 정책의 핵심은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돕는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되, 이를 거부할 경우 실업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때 국가가 제공하는 일자리 교육에 참여한 실업자는 역량 향상을 통해 취업의 기회가 높아지며, 직업 훈련에 부정적인 실업자는 구직 노력을 강화할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

한편 이 모델의 또 다른 성공 사례인 네덜란드는 이와 다른 유형의 유연안정성을 달성했다. 네덜란드 노동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제 노동자의 비율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다. 이 나라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절반 그리고 여성 노동자의 대다수가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시장 상황의 변동에 대응해 노동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노동자들은 일과 가사 그리고 여가 사이에서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외부 상황의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려는 기업과 고용 불안을 막으려는 노조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다. 노동 시장의 유연화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본 노조는 고용보호법을 일부 완화하는데 동의했다. 그 대신 시간제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전일제 노동자와 대등한 수준의 고용 보호를 얻어냄으로써 노동자 전체의 직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다. 최근에는 육아나 재충전 등을 위한 자발적인 노동 시장 불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이 더욱 제고되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실업률은 유럽연합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며, 생산성도 유럽연합 평균을 상회한다. 이들 나라가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우려를 불식할 수

있었다는 점은 유연안정성 모델이 경제 전체에 순기능을 발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35. 위 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형태의 유연성과 안정성은 동시에 신장될 수 있다.
- ② 유연안정성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 ③ 유연성은 노동 시장 상황뿐 아니라 사회 보장 제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 ④ 유연안정성 모델에서는 기업의 경쟁력보다 노사 간의 타협을 더 중시한다.
- ⑤ 유연안정성 모델에는 고용 안정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

36.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타당한 것은?

- ① 나라별로 노동자가 한 직장에 얼마나 오래 근무하는가를 조사해 보면 덴마크가 네덜란드보다 직장 안정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② 네덜란드에서는 노동 시장 유연화로 외부적-수량적 유연성이 커졌으며, 전일제 노동의 확대로 인해 소득 안정성이 제고되었다.
- ③ 덴마크의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은 실업자에 대한 직업 훈련을 통해 외부적-수량적 유연성과 직장 안정성에 기여했다.
- ④ 덴마크에서는 자유로운 해고에 따른 내부적-수량적 유연성의 부작용을 소득 안정성으로 완화했다.
- ⑤ 네덜란드에서는 시간제 노동자 비율을 늘려 내부적-수량적 유연성과 결합 안정성을 높였다.

37. 위 글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유연안정성 모델은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쉬운 일부 국가에서만 유효할 수 있다.
- ㄴ. 유연안정성 모델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한 대응 문제를 간과한다.
- ㄷ.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정적 부담이 유연안정성 모델 도입을 통한 이익보다 크다면, 유연안정성 모델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 ㄹ. 실업률이나 생산성은 노동 시장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실업률이 낮고 생산성이 높다고 해서 유연안정성 모델의 순기능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8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샤일록**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재판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삼천 두카트의 돈을 받지 않고 1파운드의 썩은 살점을 원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시겠죠. 소인의 기질 탓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노예를 거느리면서 그들을 당나귀, 개, 노새들처럼 비참하고 친한 일에 혹사하죠. 그들을 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대답하겠지요. “노예는 나의 소유물이다.” 소인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인이 요구하는 1파운드의 살점은 비싼 값을 치르고 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야 합니다. 소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법률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죠. 베니스 법령은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것이 됩니다. 소인은 법률을 요구합니다. 여기 증서가 있습니다.

**포 서** 그렇군. 약속 날짜가 지났군. 베니스의 어떤 권력으로도 정해진 법률을 바꿀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샤일록의 주장은 법적으로 흠이 없는 정당한 요구이다. 자, 이제 살을 떼어 낼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면 안 된다. 그리고 도려내는 살점은 정확히 1파운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된다. 저울이 머리 카락 한 올만큼만 기울더라도 그대는 사형이다. 그리고 전 재산을 압수한다.

‘나는 법률을 요구한다.’ 샤일록은 이 한마디로 법과 권리의 진정한 관계, 그리고 권리를 위한 투쟁의 의미를 어떤 법철학자보다도 더 적절히 표현하였다. 그의 권리 주장에서 비롯된 한 개인의 사건은 곧바로 베니스의 법률에 관한 문제가 되었다. 위의 말을 할 때 샤일록의 모습은 얼마나 힘차고 당당했을까. 1파운드의 살을 요구하는 사람은 이제 단순히 한 사람의 유대인이 아니며, 법정에서 서게 된 것은 베니스의 법률 자체이다. 그의 권리가 베니스의 법률에 합치하기 때문이다. ㉠ **비열한 술수**로 권리를 좌절시키는 판결에 샤일록이 무너졌을 때 베니스의 법률도 함께 쓰러졌으며, 법정에서 내몰린 사람은 유대인 샤일록이 아니라 법을 향해 외친 사회적 소수자 샤일록이었다.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위에서 보듯이 결과도 불확실하고 값비싼 대가가 예견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는 당사자들을 보게 된다. 소송에 따르는 희생, 비난, 번거로움은 이미 권리자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는 까닭은 단순한 금전적 이익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적인 침해에 따른 도덕적 고통 때문이다. 그의 목적은 물건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관철시키려는 것이다. 내면의 소리는 그에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물건이 아니라 인격, 명예, 법 감정, 자존심 등을 위해 소송하라고 외친다. 간단히 말해 그에게서 소송은 단순한 이익의 문제에서 인격 문제로 전환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권리 침해에 저항하기보다 다툼을 피하기 위해 권리를 포기한다. 그들에게는 수고스럽게 주장해야 할 권리보다는 오히려 평온이 더 나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하는가? “그것은 개인적인 취향과 기질의 문제이다. 어떤 사람은 소송을 좋아하며 또 어떤 이는 평화를 선호한다. 권리의 입장에서 볼 때 둘 다 정당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은 권리를 주장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권리자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가 일반화되면 결국에는 권리가

소멸하고 말 것이다. 법과 권리는 스스로의 존립을 위해서 불법에 대해 용감히 저항하도록 요구하지만, 위의 견해는 불법으로부터 비겁하게 도피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권리의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이다. 이는 도덕적인 자기 보존의 명령이며, 또한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인 것이다.

38. 위 글에서 글쓴이가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② 권리의 행사에 게으른 사람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
- ③ 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를 추구해야 한다.
- ④ 권리의 실현에서 이익과 인격의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 ⑤ 평온을 선호하는 것은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다.

39. 포서가 판결에서 행한 ㉠ ‘비열한 술수’를 적절하게 지적한 것은?

- ① 증서에 쓰여 있는 정당한 권리의 내용대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도 증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 ② 피 없는 살은 없으므로 살을 베어 낼 권리에는 피까지 포함되는데도 피를 제외하라고 선고하였다.
- ③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합치하여 계약이 성립하였는데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 ④ 권리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약속 날짜가 지났다는 것을 들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 ⑤ 사람의 살점은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이 원칙을 무시하고 판결하였다.

40. 글쓴이가 말한 ‘권리를 위한 투쟁’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동결 약속과 달리 등록금이 오르지, 학생들이 인상분에 대하여 납부 거부 운동을 하였다.
- ②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주위 사람들이 합의를 권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다.
- ③ 인근의 토지 소유자가 그 땅에 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자, 아파트 주민들이 햇볕이 안 든다고 시위를 벌였다.
- ④ 계약서를 쓰지 않고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자신한테 채무가 있는지 모르겠으니 입증이 있어야만 변제하겠다고 주장하였다.
- ⑤ 액수가 매우 적은 사건의 소송에서 복잡한 과정을 면해 주고자 법관이 그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였지만, 원고는 거절하였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